

진정한 부(富)의 의미를 찾아서



김건수 교장선생님

모두가 갈망하는 부. 부유해야 할 수 있는 것도,
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지기에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.

초·중·고 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인생에서
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?’ 라는 설문에 따르면 명예가 19.6%, 돈이 52.5%로, 돈을 인생
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
은 상인과 돈 버는 행위를 천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농공상의 질서를 유지해왔고, 이는 오랜 시
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돈을 추구하
는 행위를 속물 취급하면서도 돈을 원하는 이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

‘알고 있는 부자들 중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은가?’ 라는 설문에 ‘많다’가 19%, ‘많지 않다’
가 66%로 부자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실제
로 많은 학자와 사상가는 부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부를 경제와 돈의 차원으로 축소하는 것을
경계했습니다.

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저서 <부의 미래>에서 부와 돈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
‘부란 갈망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.’라고 정의했습니다. 예를 들어 “나에게 엄청난
만족과 유대감을 안겨주는 가족이나 친구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어도 엄청난 자산”이 됩니다.
여러 연구에 의하면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같은 또래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, 약물
사용이나 부정행위와 같은 외현(外現) 행동 및 우울증, 불안, 식이 장애와 같은 내면적 행동을
많이 보인다고 합니다.

돈은 무한한 자원도,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
니다. 대한민국 GDP(국내총생산량)는 세계 13위 정도로 경제 강국이지만 행복지수는 하위권
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여러분을 진정으로 풍족하게 할 부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.